

## 경제 및 고용 동향

### ◆ 2010년 3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10년 3월 광공업 생산은 기타운송장비, 석유정제 등은 부진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 자동차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22.1% 증가하였고,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 운수, 금융·보험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50.9%), 자동차(45.8%), 기계장비(48.4%)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기타운송장비(-15.8%), 석유정제(-10.6%), 담배(-12.7%) 등을 중심으로 생산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 서비스업 생산은 예술·스포츠·여가(-5.5%), 교육서비스업(-3.8%), 협회·수리·개인서비스업(-0.2%) 부문에서만 전년동월대비 감소하였으며, 운수업(16.2%), 부동산·임대업(12.6%),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0.5%) 등을 중심으로 증가함.
- 2010년 3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9.7%,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3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승용차, 컴퓨터·통신기기 등 내구재에서 전년동월대비 27.1%, 서적·문구 등 비내구재에서 3.2%, 오락·취미·경기용품 등에서는 증가했으나 의복부문에서 감소한 준내구재에서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설비투자는 반도체장비, 건설장비 등 기계류 투자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33.3% 증가하였고, 건설기

성은 공공·민간부문 모두 실적증가로 전년동월대비 7.3% 증가하였으며, 건설수주는 공공부문의 토목공사 발주는 감소하였으나 공공·민간부문의 건축공사 발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25.3% 감소함.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5%p 상승하여 2009년 3월 이후 13개월 동안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도 전월대비 0.7%p 하락함.

◆ 2010년 1/4분기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모두 전년동기대비 각각 25.6%, 5.6% 증가, 소비와 투자 또한 전년동기대비 각각 9.8%, 24.0% 증가

◆ 2010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2.6% 상승(생활물가지수 3.0% 상승)

- 2010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5.6(2005=100)으로 나타나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하였고, 4월 생활물가지수는 118.0으로 나타나 전월대비 0.7%, 전년동월대비 3.0% 상승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008					2009					2010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p	3월	1/4	3월
생산	광공업 생산	10.6	8.9	5.6	11.3	3.0	-15.5	-6.2	4.2	16.2	-0.8	-10.6	25.6	22.1( 1.6)
	제조업 생산	10.7	9.3	5.5	-12.1	3.0	-16.4	-6.7	4.4	16.8	-0.9	-11.3	26.6	23.2( 2.6)
	출하	8.9	6.6	5.3	-10.1	2.4	-14.7	-5.9	2.1	12.8	-1.7	-11.2	21.6	19.1( 2.5)
	내수	5.3	1.7	1.7	-11.0	-0.7	-16.3	-6.6	3.1	12.3	-1.8	-12.2	20.9	19.7(19.9)
	수출	14.3	14.3	10.3	-8.8	7.1	-12.4	-4.7	0.8	13.3	-1.7	-9.8	22.5	18.2(16.9)
	서비스업 생산	6.4	4.8	3.2	-0.4	3.4	-0.4	1.6	2.2	3.7	2.0	0.9	5.6	5.2(-0.2)
소비	소비재 판매	3.9	2.9	1.4	-4.2	1.0	-4.9	1.6	3.4	10.8	2.6	-5.2	9.8	9.7(-1.3)
투자	설비투자	-0.9	-2.7	5.3	-13.4	-4.3	-17.7	-13.4	-10.1	10.2	-8.0	-20.2	24.0	33.3( 3.7)
물가		3.8	4.8	5.5	4.5	4.7	3.9	2.8	2.0	2.4	2.8	2.6	2.7	2.6( 0.5)

주 : p는 잠정치임. ( )안은 전기(월)비를 나타냄.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를 포괄하며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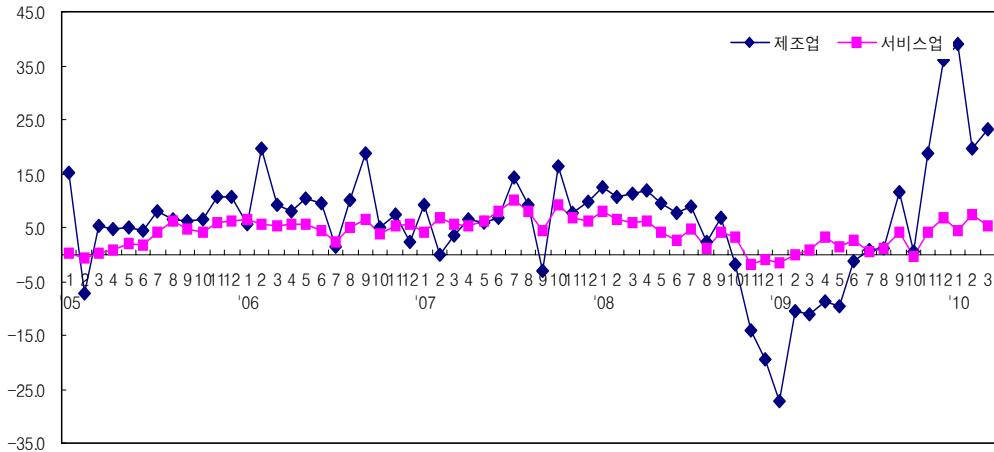
3) 물가는 2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서비스업활동동향』, 각호.

— 기타 잡비(-0.2%), 주류·담배(-0.1%) 부문만 제외하고 모든 부문에서 전월대비 상승함. 식료품·비주류음료(2.1%), 교통(0.9%), 주거 및 수도·광열, 교육, 외식·숙박(0.2%) 등을 중심으로 상승함.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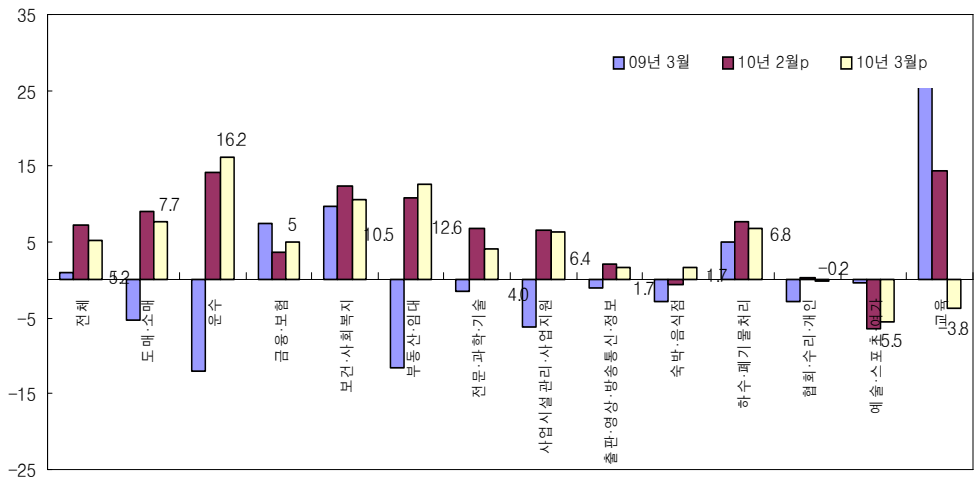
(단위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주 :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 통계청, 『2010년 1월 산업활동동향』, 2010. 3.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추이

(단위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김복순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고용률 감소세 지속

- 2010년 1/4분기 중 경제활동인구는 24,166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54천 명(1.5%)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242천 명으로 200천 명(1.4%) 증가하였고, 여성은 9,924명으로 154천 명(1.6%) 증가함.
- 2010년 1/4분기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59.8%로 전년동기대비 0.1%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성(72.0%)이 전년동기대비 동일한 반면, 여성(48.1%)은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하였음(그림 3 참조).
- 2010년 1/4분기 중 고용률은 57.0%로 전년동기대비 0.4%p 하락
  - 남성의 고용률은 68.6%로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5.9%로 전년동기대비 0.5%p 하락하였음(그림 3 참조).
- 2010년 1/4분기 중 취업자는 23,037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32천 명(0.6%)이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3,554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17천 명(0.9%)이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9,483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5천 명(0.2%)이 증가함(그림 4 참조).
- 2010년 1/4분기 중 실업자는 1,130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22천 명(24.4%)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4.7%로 전년동기대비 0.9%p 상승함.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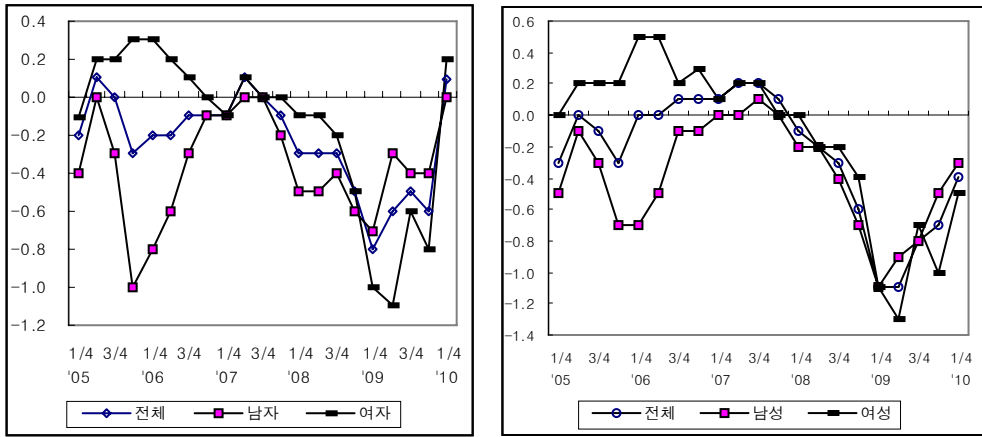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8		2009				2010		
	4/4분기	1/4분기	3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월	3월
경제활동인구	24,394 ( 0.3)	23,812 (-0.2)	24,062 (-0.2)	24,680 ( 0.2)	24,637 ( 0.5)	24,448 ( 0.2)	24,166 ( 1.5)	24,035 ( 1.6)	24,382 ( 1.3)
참가율	61.3	59.7	60.2	61.7	61.3	60.7	59.8	59.5	60.3
취업자	23,636 ( 0.3)	22,904 (-0.6)	23,110 (-0.8)	23,737 (-0.6)	23,751 ( 0.0)	23,631 ( 0.0)	23,037 ( 0.6)	22,867 ( 0.5)	23,377 ( 1.2)
고용률	59.4	57.4	57.9	59.3	59.1	58.7	57.0	56.6	57.8
실업자	757	908	952	943	886	817	1,130	1,169	1,005
실업률	3.1	3.8	4.0	3.8	3.6	3.3	4.7	4.9	4.1
비경제활동인구	15,373 ( 2.5)	16,088 ( 3.3)	15,875 ( 3.4)	15,347 ( 3.0)	15,528 ( 2.5)	15,829 ( 3.0)	16,254 ( 1.0)	16,384 ( 0.9)	16,073 ( 1.2)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통계청, 『2010년 3월 고용동향』, 2010. 4.

[그림 3] 성별 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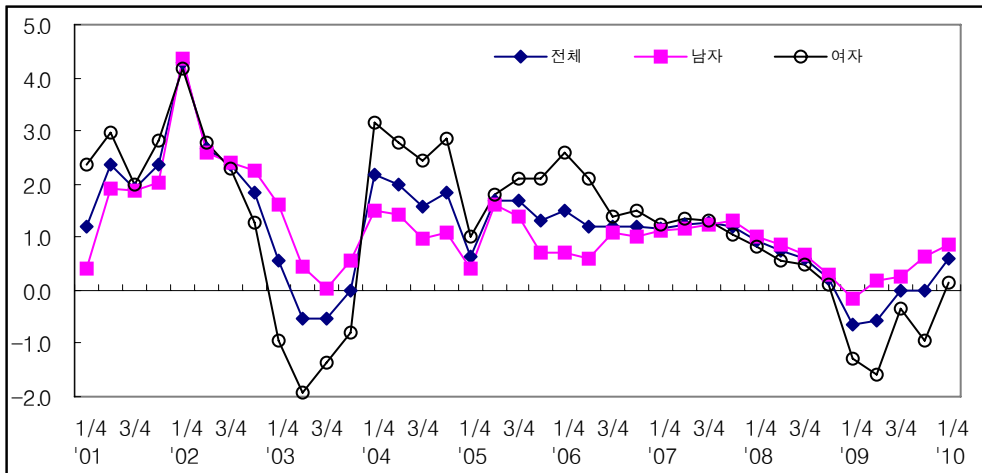
(단위 : %p,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남성 실업자는 688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83천 명(13.7%)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442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39천 명(46.0%)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4.8%로 전년동기대비 0.5%p, 여성은 4.5%로 전년동기대비 1.4%p 상승하였음.

○ 2010년 1/4분기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254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66천 명(1.0%)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527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8천 명(1.2%)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727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99천 명(0.9%)이 증가함.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232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4천 명(38.1%) 증가한 반면,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496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87천 명(-11.1%),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학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127천 명으로 74천 명(-1.7%) 감소함.

◆ 제조업 취업자 증가, 내수산업 감소세 지속

- 2010년 1/4분기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기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41천 명, 3.2%), 전기·운수·통신·금융업(111천 명, 4.1%), 제조업(61천 명, 1.6%)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64천 명, -11.7%), 건설업(-61천 명, -3.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57천 명, -1.0%)에서는 감소함.
-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제조업 취업자가 반전하여 증가함(그림 5 참조).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8		2009				2010		
	4/4분기	1/4분기	3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월	3월
전 산업	23,636 ( 0.3)	22,904 (-0.6)	23,110 (-0.8)	23,737 (-0.6)	23,751 ( 0.0)	23,631 ( 0.0)	23,037 ( 0.6)	22,867 ( 0.5)	23,377 ( 1.2)
농림어업	1,695 ( 0.5)	1,398 ( 1.0)	1,573 ( 1.4)	1,817 (-1.3)	1,799 (-1.4)	1,579 (-6.9)	1,235 (-11.7)	1,197 (-10.7)	1,385 (-12.0)
제조업	3,910 (-2.6)	3,850 (-4.1)	3,813 (-4.7)	3,843 (-3.8)	3,791 (-3.6)	3,862 (-1.2)	3,911 ( 1.6)	3,886 ( 1.2)	3,924 ( 2.9)
건설업	1,811 (-2.2)	1,705 (-2.5)	1,736 (-3.9)	1,772 (-6.0)	1,699 (-5.7)	1,704 (-5.9)	1,644 ( -3.6)	1,595 ( -5.2)	1,720 ( -0.9)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657 (-1.1)	5,589 (-2.0)	5,543 (-2.4)	5,534 (-2.4)	5,511 (-2.8)	5,511 (-2.6)	5,532 ( -1.0)	5,539 ( -0.5)	5,455 ( -1.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7,787 ( 4.0)	7,618 ( 3.2)	7,705 ( 3.5)	7,984 ( 4.5)	8,175 ( 5.9)	8,149 ( 4.6)	7,859 ( 3.2)	7,797 ( 2.8)	8,043 ( 4.4)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754 (-1.9)	2,722 (-2.6)	2,716 (-2.9)	2,765 (-1.8)	2,753 (-0.9)	2,802 ( 1.8)	2,834 ( 4.1)	2,833 ( 4.8)	2,829 ( 4.2)

주: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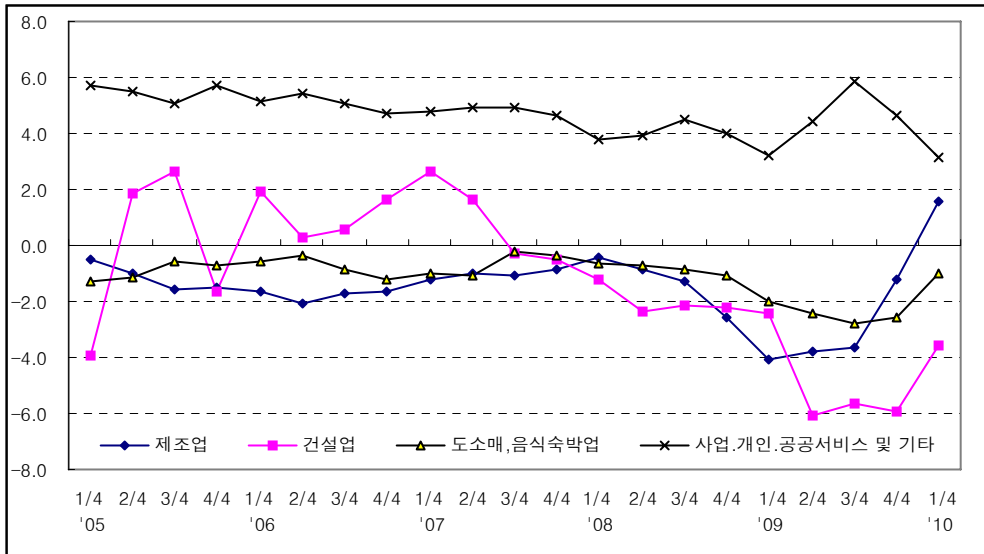
2)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 『2010년 3월 고용동향』, 2010. 4.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기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비임금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취업자 감소추세 지속

- 2010년 1/4분기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638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39천 명(-3.5%)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6,398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371천 명(2.3%)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9,808천 명으로 651천 명(7.1%)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4,892천 명으로 37천 명(-0.7%), 일용근로자는 1,699천 명으로 243천 명(-12.5%) 감소함.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용근로자의 감소세가 지속(그림 6 참조).
  - 2009년 이후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를 중심으로 비임금근로자 감소추세가 지속되는 반면, 고용원이 있는 고용주는 2009년 하반기 이후 증가추세를 보임(그림 6 참조).
- 2010년 1/4분기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851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760천 명(56.9%) 증가한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7,671천 명으로 1,680천 명(-8.7%) 감소함.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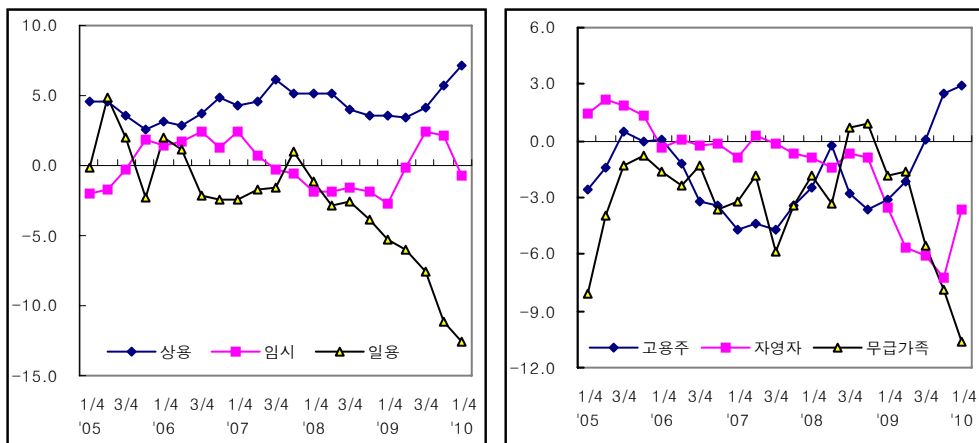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8		2009				2010		
	4/4분기	1/4분기	3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월	3월
전 체	23,636 ( 0.3)	22,904 (-0.6)	23,110 (-0.8)	23,737 (-0.6)	23,751 ( 0.0)	23,631 ( 0.0)	23,037 ( 0.6)	22,867 ( 0.5)	23,377 ( 1.2)
비임금근로자	7,343 (-1.1)	6,877 (-3.1)	7,034 (-3.8)	7,212 (-4.1)	7,166 (-4.7)	6,952 (-5.3)	6,638 (-3.5)	6,585 (-3.0)	6,761 (-3.9)
자영업주	5,939 (-1.6)	5,620 (-3.4)	5,714 (-3.7)	5,787 (-4.7)	5,776 (-4.6)	5,600 (-4.7)	5,514 (-1.9)	5,489 (-1.3)	5,579 (-2.4)
무급가족종사자	1,404 ( 0.9)	1,258 (-1.8)	1,321 (-4.0)	1,425 (-1.6)	1,390 (-5.5)	1,292 (-7.9)	1,124 (-10.6)	1,097 (-10.9)	1,182 (-10.5)
임금근로자	16,294 ( 0.9)	16,027 ( 0.5)	16,076 ( 0.5)	16,525 ( 1.1)	16,585 ( 2.2)	16,678 ( 2.4)	16,398 ( 2.3)	16,282 ( 2.1)	16,617 ( 3.4)
상용근로자	9,106 ( 3.6)	9,157 ( 3.6)	9,174 ( 3.1)	9,294 ( 3.5)	9,487 ( 4.2)	9,621 ( 5.7)	9,808 ( 7.1)	9,786 ( 6.4)	9,926 ( 8.2)
임시근로자	5,062 (-1.8)	4,928 (-2.7)	4,941 (-1.6)	5,136 (-0.1)	5,174 ( 2.5)	5,167 ( 2.1)	4,892 (-0.7)	4,838 (-0.5)	4,976 ( 0.7)
일용근로자	2,126 (-3.8)	1,942 (-5.3)	1,961 (-5.4)	2,094 (-6.0)	1,924 (-7.5)	1,891 (-11.1)	1,699 (-12.5)	1,657 (-12.6)	1,714 (-12.6)
36시간 미만	2,833 (11.1)	3,092 (11.6)	2,954 (11.8)	2,997 (-1.9)	3,390 (-33.9)	2,961 ( 4.5)	4,851 (56.9)	8,056 (153.8)	3,297 (11.6)
36시간 이상	20,552 (-1.2)	19,351 (-2.7)	19,919 (-2.6)	20,480 (-3.0)	19,894 ( 9.7)	20,404 (-0.7)	17,671 (-8.7)	14,169 (-25.7)	19,814 (-0.5)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2010년 3월 고용동향』, 2010. 4.

〈그림 6〉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기대비)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 전연령 모두 실업자 증가

- 2010년 1/4분기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하였고, 특히 60세 이상의 증가가 두드러짐.
  - 2010년 1/4분기 중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20대(9.1%, 0.8%p), 30대(3.9%, 0.2%p), 40대(2.9%, 0.4%p), 50대(3.2%, 0.8%p), 60세 이상(5.8%, 4.2%p)에서 증가함.
  - 2010년 1/4분기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중 60세 이상은 146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07천 명(274.3%)이 증가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기대비 중졸 이하(5.1%, 2.2%p), 고졸(5.0%, 0.5%), 대졸 이상(4.2%, 0.6%p) 모두 상승하였음.
- 2010년 1/4분기 중 전체 실업자 1,130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57천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0천 명,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1,072천 명으로 211천 명 증가했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07			2008			2009		
	4/4분기	1/4분기	3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월	3월
전 체	757(3.1)	908(3.8)	952(4.0)	943(3.8)	886(3.6)	817(3.3)	1,130(4.7)	1,169( 4.9)	1,005(4.1)
15~29세	300(7.0)	368(8.6)	375(8.8)	351(8.0)	350(8.1)	320(7.6)	408(9.5)	433(10.0)	379(9.0)
30~39세	202(3.3)	227(3.7)	240(3.9)	237(3.9)	213(3.5)	202(3.3)	234(3.9)	242( 4.0)	229(3.8)
40~49세	134(2.0)	166(2.5)	191(2.9)	176(2.6)	160(2.4)	151(2.3)	192(2.9)	198( 3.0)	191(2.8)
50~59세	93(2.1)	108(2.4)	110(2.4)	127(2.7)	118(2.5)	104(2.2)	150(3.2)	151( 3.2)	126(2.6)
60세 이상	29(1.1)	39(1.6)	37(1.4)	53(1.9)	46(1.6)	41(1.5)	146(5.8)	145( 6.0)	80(3.0)
중졸 이하	111(2.1)	143(2.9)	145(2.9)	141(2.6)	116(2.2)	119(2.3)	241(5.1)	225( 4.9)	162(3.3)
고졸	383(3.8)	438(4.5)	442(4.5)	459(4.6)	460(4.6)	393(4.0)	493(5.0)	504( 5.1)	450(4.6)
대졸 이상	263(2.9)	327(3.6)	365(4.0)	343(3.7)	310(3.3)	306(3.2)	396(4.2)	440( 4.6)	393(4.1)
취업무경험실업자	37	47	46	38	37	36	57	60	43
취업유경험실업자	721	861	906	905	849	781	1,072	1,109	962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 『2010년 3월 고용동향』, 2010. 4.

(정성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가계수지 동향

### ◇ 2009년 4/4분기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득과 소비 증가

- 2009년 4/4분기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기대비로는 4.9% 증가하였음(실질로는 2.4% 증가).
  - 전국가구의 경상소득 중 근로소득(3.6%)과 사업소득(9.9%)은 증가하였으나, 재산소득(-29.5%), 이전소득(-0.95)은 감소하였음.
  - 소비지출의 식료품·비주류음료 등은 감소하였으나 교통(27.3%), 의류·신발(11.8%), 보건(11.4%) 등에서는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7.3% 증가하였음(실질로는 5.5% 증가).

〈표 6〉 2인 이상 전국가구의 분기별 가계수지 동향

(단위: 천 원, %)

	2008				2009					
	4/4분기		연간		3/4분기		4/4분기		연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득	3,375.6	4.0	3,392.8	6.1	3,456.3	-0.7	3,539.7	4.9	3,442.8	1.5
실질	3,046.6	-0.5	3,092.8	1.4	3,050.6	-2.6	3,119.4	2.4	3,052.1	-1.3
경상소득	3,248.0	5.0	3,255.8	6.4	3,351.4	0.2	3,392.7	4.5	3,302.9	1.4
근로소득	2,210.7	6.5	2,208.8	8.2	2,276.4	-0.4	2,291.1	3.6	2,244.0	1.6
사업소득	728.0	-0.8	738.1	1.9	763.7	2.5	799.7	9.9	750.6	1.7
재산소득	16.2	-9.1	18.2	-1.4	14.9	-18.6	11.4	-29.5	15.3	-16.0
이전소득	293.1	10.0	290.8	5.5	296.4	0.0	290.5	-0.9	293.1	0.8
비경상소득	127.6	-16.3	136.9	-0.4	104.9	-21.4	147.0	15.2	139.8	2.1
소비지출	2,066.9	2.5	2,116.1	4.9	2,197.2	2.7	2,218.7	7.3	2,156.1	1.9
실질	1,877.4	-1.7	1,930.9	0.3	1,953.7	1.2	1,980.0	5.5	1,925.1	-0.3
처분가능소득	2,769.9	3.8	2,789.8	6.1	2,835.2	-0.5	2,893.5	4.5	2,816.1	0.9
흑자액	703.0	7.8	673.7	9.8	638.0	-10.2	674.9	-4.0	659.9	-2.0
흑자율	25.4	0.9p	24.1	0.8p	22.5	-2.4p	23.3	-2.1p	23.4	-0.7p
평균소비성향	74.6	-0.9p	75.9	-0.8p	77.5	2.4p	76.7	2.1p	76.6	0.7p

주: 1) 실질소득(소비)=(소득/2005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100

2)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조세,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지출과 타가구 송금 등의 사적지출이 포함됨)

3)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

4)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자료: 통계청, 『2009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2010. 2.

- 비소비지출의 경우는 추석명절의 이동효과(2008년 3/4분기→2009년 4/4분기)에 기인해 이전지출(16.3%)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6.7% 증가하였음.
- 2009년 연간 전국가구의 소득은 경상소득(1.4%), 비경상소득(2.1%)에서 증가하여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고, 소비지출은 1.9% 증가하였음. 실질로는 소득과 소비지출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3%,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09년 전국가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14로 전년 0.315에 비해 다소 낮아졌으며, 소득5분위배율은 5.76배로 전년 대비 0.05배p 증가하였음. 상대빈곤율의 경우는 15.2%로 전년 대비 0.2%p 증가하였음.

〈표 7〉 소득분배 동향

(단위 : 배,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국가구 (2인 이상 비농가)	지니계수	시장소득	0.293	0.301	0.306	0.313	0.321	0.323	0.319
		가처분소득	0.277	0.284	0.287	0.291	0.296	0.296	0.293
		개선효과	0.016	0.017	0.019	0.022	0.025	0.027	0.026
	소득5분위 배율	시장소득	5.00	5.27	5.52	5.75	6.08	6.16	6.10
		가처분소득	4.44	4.61	4.75	4.82	4.97	4.97	4.92
		개선효과	0.56	0.66	0.77	0.93	1.11	1.19	1.18
	상대빈곤율	시장소득	13.2	13.8	14.6	14.7	15.4	15.0	15.4
		가처분소득	11.6	12.1	12.7	12.7	12.9	13.0	13.1
		개선효과	1.6	1.7	1.9	2.0	2.5	2.0	2.3
도시가구 (2인 이상)	지니계수	시장소득	0.284	0.294	0.299	0.305	0.316	0.319	0.319
		가처분소득	0.270	0.278	0.281	0.285	0.293	0.294	0.294
		개선효과	0.014	0.016	0.018	0.020	0.023	0.025	0.025
	소득5분위 배율	시장소득	4.69	4.95	5.18	5.39	5.80	5.92	6.06
		가처분소득	4.24	4.42	4.55	4.62	4.86	4.87	4.94
		개선효과	0.45	0.53	0.63	0.77	0.94	1.05	1.12
	상대빈곤율	시장소득	12.2	13.0	13.6	13.7	14.8	14.7	15.3
		가처분소득	10.6	11.2	11.9	12.0	12.6	12.5	13.1
		개선효과	1.6	1.8	1.7	1.7	2.2	2.2	2.2

주: 1)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 이전소득  
 가처분소득=시장소득+공적 이전소득-공적 비소비지출  
 개선효과=시장소득 기준-가처분소득 기준

2) 소득 5분위배율=상위 20%의 소득(5분위)/하위 20%의 소득(1분위)

3) 상대적 빈곤율: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반정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 노사관계 동향

### ◆ 노사분규 발생주이

- 2010년 1월 1일부터 5월 2일 현재까지 노사분규 누적발생건수는 9건, 근로손실일수 (2010년 4월 28일 기준)는 94,042일로 집계됨.

〈표 8〉 노사분규 발생 추이

(단위: 개소, %)

	2010. 1. 1~2010. 5. 2	전년동기	증 감(%)
노사분규 발생건수	9	16	△43.8
종 결	5	12	-
진 행	4(2)	4(1)	( )는 전년도 이월
근로손실일수	94,042	52,046	80.7

주: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근로손실일수는 4월 28일 기준임.

자료: 노동부.

### ◆ 근면위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

- 4월 30일(금) 15:00~5월 1일(토) 03:00 근면위는 제16차 전체회의를 개최, 근로시간면제 한도(타임오프) 의결
  - 근면위는 5월 2일 조합원 규모에 따라 타임오프 한도 적용사업장을 총 11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300인 이하 중소기업 노조는 전임자 2명, 대기업 노조의 경우 2012년 7월부터 18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등의 의결안을 발표함.
    - ※ 근면위 의결에 따라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은 1년에 총 1,000시간의 유급노동조용을 보장받을 수 있고(전임자 0.5명), 15,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28,000시간(전임자 14명)에 3,000명마다 2,000시간을 추가하는 대신 2012년 7월부터는 36,000시간(전임자 18명) 초과하지 못함.
  - 5월 1일(토) 민주노총은 「근면위의 날치기는 노동자들에 대한 전쟁선포이다」라는 제하의 성명 발표
    - ※ 성명 주요내용: ▲법정시한을 넘겨 불법적으로 노동계의 손발을 묶은 채 강행 처리하였으므로 무효임 ▲경찰·노동부 직원들을 동원, 노동계 위원들을 몰아

〈표 9〉 근면위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의결내용

조합원 규모	시간 한도	사용가능인원
50명 미만	최대 1,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음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50~99명	최대 2,000시간 이내	
100~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500~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3,000~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2012. 6. 30까지 : 28,000시간 + 매 3,000명마다 2,000시간씩 추가한 시간 이내	
	2012. 7. 1 이후 : 최대 36,000시간 이내	

부친 것에 대해서는 민·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임 ▲노동절을 기점으로 전면적 투쟁을 선포함.

- 5월 1일(토) 한국노총은 「근면위의 불법적인 표결처리를 강력히 규탄하며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라는 제하의 성명 발표
  - ※ 성명 주요내용: ▲표결처리가 근면위 활동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원천무효임 ▲개정노조법에 따라 국회가 나서야 하며, 환노위가 현행의 전임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야를 떠나 적극적인 역할과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 등
- 5월 2일(일) 경제4단체(경총·대한상의·전경련·무역협회)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근면위가 정한 타임오프 한도는 과도한 수준이라며 유감의 뜻을 밝힘.

◆ 민주노총, 범국민 4대 요구 및 20대 과제 발표

- 5월 1일(토)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노동절 범국민대회조직위는 전국 16곳에서 1만 7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20주년 노동절 범국민대회」 개최(서울 6천여명, 지방 1만 1천여명 참석)
  - 김영훈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산하단체는 임단투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2선 지도부 구축, ▲6.2 지방선거에서 전조합원이 계급투표 등 전면 선거투쟁으로 정권 심판할 것을 골자로 하는 투쟁지침 발표

- 이날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범국민 4대 요구 및 20대 과제』 발표
  - ※ 4대 요구: ▲노동탄압 중단, 노동기본권 확보, ▲노동자·농민·서민 기본생활 확보, ▲노동시장 유연화 반대, 좋은 일자리 확보, ▲밥과 강, 민주주의를 위한 정권심판, 지방선거 승리
  - ※ 20대 과제 주요내용: ▲복수노조·전임자 개악노조법 전면 재개정, ▲건설·철도·교사·공무원·이주노동자 등 노동탄압 중단 및 노동기본권 보장,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과 권리입법 보장, ▲정리해고 구조조정 중단 및 단시간근로제 도입(피졸잡) 폐기, ▲사회공공서비스 확대로 일자리 확충, ▲청년고용할당제 도입 및 청년·자영업 실업자에게 실업수당 지급, ▲4대강 사업 즉각 중단 및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 등

◆ MBC노조

- 노조는 황희만 부사장 임명에 반발, 28일째(4월 5부터) 파업 및 24일째(4월 9일부터) 사장·부사장 출근저지 계속

〈표 10〉 최근 파업 현황

	4.20(화)	4.21(수)	4.22(목)	4.23(금)	4.26(월)	4.27(화)	4.28(수)	4.29(목)	4.30(금)
서울본사	658	645	650	637	656	656	668	637	656
19개 지부	451	456	485	478	445	451	451	438	435
전 체	1,109	1,101	1,135	1,115	1,101	1,107	1,119	1,075	1,091

- 4월 30일(금) 사장·부사장은 출근시도를 하지 않고 바로 임시사무실로 출근, 노조는 MBC 남문 앞에서 『MBC 지키기 1만인 촛불문화제』 개최
- 이날 MBC PD협회 등 8개 사내 직능단체는 『황희만 부사장의 사퇴 또는 임명 철회 촉구』 성명 발표
  - ※ 성명 주요내용: ▲황희만 부사장에게는 MBC를 살리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요청, ▲사장에게는 황희만 부사장 임명 철회 및 김우룡 이사장 고소 촉구 등
- 지난 2월 8일 방송문화진흥회가 황희만·윤혁을 보도본부장(이사)·제작본부장(이사)으로 선임하자 노조는 2월 8일부터 신임이사(제작·보도본부장) 및 3월 2일부터 신임 김재철 사장 출근저지 등으로 반발. 김재철 사장이 황희만·윤혁 이사의 보직 사퇴를 약속함에 따라 3월 8일 출근저지 투쟁을 중단하였음.
  - ※ 노조는 2월 11일~2월 18일 파업 찬반투표 69.9% 찬성 가결

- 4월 2일 사측이 황희만 이사를 부사장으로 임명하자 4월 5일 노조(서울 본사)는 반발하며 파업 돌입
- 4월 27일 사측은 노조위원장 등 간부 1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서울남부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 ※ 노조는 4월 27일 09:00까지 업무복귀하라는 사측 요구(4월 26일)에 불응
- 4월 28일 언론노조는 중집위를 개최, MBC 총파업 승리를 위한 연대투쟁 결의

◆ **금호타이어, 2010년 임단협 조인식 개최**

- 4월 22일(목) 14:00경 노사는 사내회의실에서 2010년 임단협 조인식 개최, 이날 노사는 연명으로 채권단에 구조조정동의서 제출
  - ※ 노조는 고평석 위원장 등 8명, 사측은 김종호 대표이사 등 8명 참석
- 한편, 4월 22일(목) 노조집행부는 임단협 후속조치(인력실무위원회 논의 등) 마무리 후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힘
  - ※ 4월 20일 노조 반집행부 성향 사조직인 공대위는 재잠정합의를 비난하면서 집행부가 4월 23일까지 총사퇴하지 않을 경우 4월 24일부터 집행부 탄핵을 위한 조합원 서명운동 및 임시총회 소집요구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힘.
- 그간 노사는 경영위기에 따른 자구책 마련을 위해 4월 1일 임단협을 잠정합의하였으나 4월 8일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부결됨(임금 43.8% 찬성, 단협 42.9% 찬성).
  - ※ 잠정합의 주요내용: ▲기본급 10% 삭감 및 워크아웃기간 동안 5% 반납, ▲워크아웃기간 동안 임금동결, ▲워크아웃기간 동안 상여금 200% 반납, ▲193명 정리해고 유보, ▲597개 직무 단계적 도급화(2010년은 4월, 이후는 매년 12월 실시) 등
- 4월 9일 사측, 정리해고 대상자(산재 5명 포함한 189명)에 대해 4월 10일자 해고 통보하고, 도급화 대상자(1,006명)에 대해서는 5월 10일까지 도급화 유예 통보
  - ※ 4월 9일 반집행부 성향 민노회 등 소속 조합원 20여명, 노조사무실에 난입(이 과정에서 집행부 노조간부 4명 부상)→반집행부 20여명, 4월 9일~4월 13일 노조사무실 점거
- 4월 18일 노사는 임단협을 재잠정합의하고, 『노사평화공동선언문』 채택함.
  - ※ 재잠정합의안 주요내용: ▲개별로 ‘취업규칙 등 준수확약서’ 제출자에 한해 해고자 189명 복직(다만 해고과정에서 불법 및 사규 위반 해고자는 회사가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최대한 기동보한 해고시행 철회), ▲해고예정자 1,006명(도급대상자) 해고예고 철회, ▲워크아웃기간 동안 상여금 200% 반납하되, 2010년

- 에 한해 100% 반납, ▲임금 등 기타사항은 잠정합의와 동일(기본급 10% 삭감 및 워크아웃기간 동안 5% 반납, 워크아웃기간 동안 임금동결 등)
- 4월 21일 노조, 임단협 재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가결(임금 64.2%, 단협 64.4% 찬성)

◆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지회**

- 4월 30일(금)~5월 1일(토) 노조는 임단협 교섭이 진전없자 전면 파업(280여명 참가)
  - ※ 4.27, 4.29 각 4시간 파업(사내 하청 17개사 중 13개사 조합원 200여명 참가)
  - 5월 2일(일) 조합원 200여명 파업 계속(광주·곡성공장식당 조합원 80여명 업무복귀), 원청인 금호타이어가 일반직 직원 투입하여 정상조업 중
  - 4월 30일(금)~5월 2일(일) 노사는 매일 교섭하였으나, 상여금 삭감폭 등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 없이 종료
    - ※ 사측은 원청인 금호타이어의 교섭 결과가 임금성 약 35% 정도 삭감되었다며 고통분담 차원에서 상여금 200% 삭감 주장 고수, 이에 노조는 상여금 100% 삭감은 수용가능하나, 원청은 임금동결되었더라도 호봉승급으로 연 2% 정도의 임금상승 효과가 있으나 하청은 일당제로 인해 호봉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청과 비교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양보는 불가 입장
- 그간 사측은 원청인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 상황인 것을 감안, 노조에 조기 임단협 교섭을 요구→노조는 3월 12일~4월 1일 6차례 교섭이 진전없자 4월 5일 전남지노위에 조정신청(4월 23일 조정중지 결정), 4월 16일 쟁의행위 찬반투표(66.3% 찬성 가결)
  - ※ 노사 주요쟁점 : ▲노조는 상여금 100% 삭감(vs 200% 삭감), ▲임금 월 130,730원(정액) 인상(vs 동결), ▲단협 임금성 조항 현행유지(vs 개정근기법 적용(생리휴가 무급, 연차휴가 15일, 월차휴가 폐지 등))
  - ※ 사측은 임금과 상여금에 대해 당초 제시한 일당 10% 삭감 및 상여금 100% 삭감안을 철회하고 임금동결, 상여금 200%(500%→300%) 삭감안 제시

◆ **금융노조**

- 4.12(월) 노조는 임금 3.7% 인상, 정년 2년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0년 임단협 요구안 발표
  - 임금협상 주요요구안 : ▲임금 3.7% 인상(0.7%는 사회공헌기금 조성), 초임 삭감직원 급여 원상회복('10. 1. 1 현재) 등
  - ※ 양노총 등의 임금요구안 : 한국노총 9.5%, 민주노총 9.2%, 금속노조 8.3%, 보건



의료노조 8.7% 인상

- 단체협상 주요요구안: ▲정년연장(58세→60세, 임금피크제 도입시 62세) ▲고용안정(인수합병시 고용문제 노사간 합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노조전임자수 및 근로조건 확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 노조는 최근 2년간 임금동결 등으로 인해 조합원 사기진작을 위해 임금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 ↔ 사측은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
  - ※ 과거 인상률: '02(6.5%) → '03(5.1%) → '04(3.8%) → '05(3.8%) → '06(2.9%) → '07(3.2%) → '08(동결) → '09(반납·삭감)
- 근로시간면제(노조전임자수 등) 관련 입장표명: ▲근로시간면제범위 결정시 조합원수뿐만 아니라 종업원수 및 분회수 반영, ▲상급단체 파견간부 타임오프 적용(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자율적 사용보장), ▲무급 또는 부분무급 전임자 차별금지(임금 제외 여타 근로조건), ▲정부의 노조전임자수 가이드라인 폐지(금융공기업 및 국책기관), ▲규모별 형평성 유지(금융노조는 300인 이상이 78%, 한국노총은 300 이하가 86%), ▲근로시간면제한도 자유롭게 사용(전임, 반전임 구분 없이)

### ◆ 금속노조

- 4월 27일(화) 개최된 4차 산별중앙교섭에서 사측이 노조요구안에 대한 임단협안을 제시
  -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임단협안에 대해 강력 항의, 사측은 제시안이 최종안은 아니며 최선을 다해 지혜를 모아가겠다는 입장 표명
    - ※ 노조요구안: ▲금속산업 최저임금(월 1,076,770원, 시급 5,152원), ▲고용창출 요구, ▲비정규직 관련 신설요구(사내하도급 제한, 명예근로감독관 위촉,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고용안정, ▲사내하청노동자 처우개선과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현행 퇴직금제도 유지 및 산별퇴직연금 도입 논의, ▲실노동시간 단축(연간 2,700시간으로 제한), 이에 대해 사측은 대부분의 안에 대해 현행 협약을 유지하는 등의 안을 제시
    - ※ 임단협 투쟁일정: ▲5월 25일 조정신청 ▲6월 3일~6월 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6월 7일~6월 18일 총력투쟁
- 한편, 노조는 2월 23일부터의 전임자수 보장 등을 위한 특별단체교섭(보충교섭)이 진전없자 4월 16일 중노위에 조정신청(4월 26일 노동쟁의가 아님을 이유로 행정지도),

- 4월 21일~4월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재적 대비 52.65% 찬성으로 가결
- ※ 대다수 사측은 근면위 결정(4월 말 예정)후 교섭 입장을 표명하며, 교섭에 불응 또는 소극적, 재적조합원 137,450명 중 108,582명 투표(79.0%), 찬성 72,369명(재적 대비 52.65%)→현대차 부결(38% 찬성), 기아차 가결(56.6% 찬성), GM대우차 가결(59.6%)
- 4월 26일 쟁대위를 개최, 근면위 상황(4월 말까지 합의불가능)과 천안함 조문정국(4월 29일까지)을 고려하여 4월 28일(수) 총파업은 유보하되, 대신 4월 30일(금) 4시간 확대간부 이상 파업을 실시(근면위 상황 조합원들에게 보고)키로 결정

### ◆ 국민연금공단

- 4월 30일(금) 노조는 임금인상·연봉제 확대 반대 등을 요구하며 5시간 경고성 파업(3,100여명 참가)
  - 노조는 경고파업후 5월 임단협 교섭에서 노조안 관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사측은 노조의 교섭요구에는 응하되, 연봉제 확대 등 공기업 선진화 관련 사항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 ※ 노사 주요쟁점: ▲기본급 5만원 인상 등 총액 6.6% 인상(vs 동결), ▲구조조정 시 노조 동의조항 유지(vs 노조 동의조항 삭제), ▲연봉제 확대안에 대한 현행 유지(vs 연봉제 확대(2급 이상→3급 이상)), ▲전임자 임금 기준 11명에서 1명 축소(vs 전임자 5명 축소), ▲정년연장(vs 타기관 사례 검토후 논의 가능)
- 그간 노조는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 20차례(본교섭 6회, 실무교섭 14회) 임단협 교섭이 진전없자 6월 12일 중노위에 조정신청(6월 22일 조정중지), 7월 1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69.6% 찬성으로 가결됨(조합원 3,391명 중 2,361명 찬성).
  - 2009년 11월 6일~11월 16일 노조는 임금인상, 단협 개악(초임삭감·연봉제 도입 등) 저지 등을 주장하며 지역별 순환 부분파업 돌입
  - 2009년 12월 21일~12월 23일 노사간 임단협 집중실무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였으나 신임 이사장('09. 12. 2 전광우 취임)이 공공부문 선진화 관련 사항(연봉제 확대, 전임자수 축소 등)이 미흡하다며 최종합의를 거부(이후 교섭 중단)
    - ※ 잠정합의안 주요내용: ▲성과급 차등폭은 ±28%p로 하되, 일부 각출하여 노사공동의 경영효율화 기금 마련(명예퇴직 활성화), ▲전임자 1명 축소('10. 1. 1.부터 11명→10명), ▲다면평가 결과 근평 반영 폐지, ▲노조간부 전보시 인사협의 대상자 축소 등
  - 2010년 3월 15일 사측은 노조에 단협해지 통보

◆ 한국철도공사

- 4월 30일(금) 13:00~16:30 노조는 확대쟁대위를 개최하여 5월 12일(수) 총파업 돌입 등 상반기 투쟁일정 결정
  - ※ 중앙쟁의대책위원, 지부장, 대의원 등 노조간부 150여명 참석
  - ※ 상반기 투쟁일정: ▲5월 1일 지역별 사전결의대회 및 민주노총 노동절 범국민대회 참가, ▲5월 7일 안전운행실천투쟁 돌입, ▲5월 12일 총파업 돌입 및 지역별 결의대회 개최
  
- 그간 노사는 2008년 중단된 단체교섭을 2009년 5월 25일 재개, 노사요구안을 170건으로 재정리→11월 24일까지 노사교섭(77회)에서 72건 잠정합의, 98건 미합의
  - ※ 노조, 10월 8일 조정신청(10월 30일 조정불성립)→10월 2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72.6% 찬성)
    - 노조는 사측의 단협 개정안(임금구조, 교대제, 전임자 축소 등) 및 복지 축소 등에 반발, 9월 8일~11월 6일 간헐적 파업, 11월 26일~12월 3일 전면파업에 돌입하였음.
    - 사측은 파업 관련 주동자 고소·징계, 11월 24일 단협해지 통고(2010년 5월 23일 효력발생)
      - ※ 징계·손배청구 현황: ▲징계대상자 11,588명(파면 30명, 해임 165명 등), ▲고소·고발 466명(구속 1명), ▲손배청구액 약 96억여원(2010년 3월 23일 기준), 3월 11일 법원은 김기태 노조위원장(2009년 11월 26일 철도파업으로 구속기소)의 보석신청 기각
    - 노사 임단협 실무교섭(4월 20일~4월 24일)에서 비쟁점사항 32개 조항 의견접근
      - ※ 의견접근 주요내용: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신의성실 의무, ▲인사의 원칙, ▲여직원 법정근로, ▲생리·태아검진휴가, ▲육아휴직, ▲징계절차, ▲여직원 후생시설, ▲휴직자의 대우 등
    - 4월 29일 노사는 임단협 실무교섭 개최하였으나, 주요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 없이 종료
      - ※ 노사 주요쟁점: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 현행 174시간 유지 vs 209시간, ▲전임자수: 현행 62명 유지 vs 20명 인정, 2010년 7월 1일 이전에는 종전대로 급여 지급하되, 이후에는 근면위 결정에 따름, ▲인사시 노조 동의요하는 조합간부 범위: 현행유지 vs 선출직 간부로 축소, ▲비연고지역으로의 전보금지: 현행유지 vs 조합 삭제, ▲약정휴일·휴가 축소: 현행유지 vs 식목일, 노조설립일 등 삭제, ▲부당징계 확정시 위로금(평균임금 200%): 현행유지 vs 삭제, ▲근속승진: 현행유지 vs 삭제, ▲근무체제(3조2교대제): 현행유지 vs 교대제를 다양한

형태로 변경

◆ **서울도시철도공사**

- 4월 30일(금) 16:20~18:40 중노위는 제3차 조정회의 개최(노조는 허인 위원장 등 3명, 사측은 음성직 사장 등 4명 참석)
  - 중노위, 정년제·퇴직금 현행 유지 등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 제시→사측은 수락, 노조는 거부하여 조정불성립
    - ※ 조정안 주요내용: ▲정년제·퇴직금제 현행 유지, ▲연봉제는 TF팀을 구성하여 협의, ▲각종 휴가·수당 등 축소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간 충분한 교섭 권고
    - ※ 노사 주요쟁점: ▲정년 2년 연장(현행 만58세) vs 현행 유지, ▲퇴직금 관련 조항 현행유지 vs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변경, ▲2급 이하 전직원 연봉제 실시 수용불가 vs 2급 이하 전직원 연봉제 실시, ▲고용관련 사항 노조와 사전합의에서 협의로 변경 불가 vs 고용관련 사항 노조와 사전합의에서 협의로 변경, ▲보건휴가 현행 유지 vs 보건휴가 삭제 등 휴가 축소
- 노조는 5월 3일(월) 노조간부 위주 1일 경고파업 및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5월 투쟁계획 발표 예정
- 그간 노조는 2월 11일~4월 14일 16차례(본 교섭 5차, 실무교섭 11차) 단체교섭이 진전없자 4월 15일(목) 중노위에 조정신청
  - ※ 사측은 기존 단협 121개 조항 중 41개 조항 삭제, 56개 조항 변경 제안→노조는 사측 제시안 중 연봉제, 휴가휴일 축소, 퇴직금 단수제, 기존 단협내용 삭제 등에 대한 사측의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줄 것을 요구
  - 4월 16일~4월 19일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82.1% 찬성 가결(재적조합원 5,410명 중 5,110명 투표(94.5%), 찬성 4,440명)
  - 4월 23일 노조는 쟁대위를 개최, 향후 투쟁계획 결정
    - ※ 주요 투쟁계획: ▲4월 25일~4월 30일 출근 선전전 및 대시민 선전전, ▲5월 3일노조 간부 중심 1차 경고파업 ▲5월 16일~5월 22일 지방선거 관련 출퇴근 시간 대시민 선전전 **KLI**

(반정호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